



신한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정상혁 은행장이 '고객몰입의 끈을 고쳐 매고 고객의 실리(實利)를 높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한은행

## “고객 체감할 수 있는 차별점 만들어야”

신한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정상혁 은행장 “신뢰구축 앞장”

신한은행이 신뢰 구축에 방점을 찍은 하반기 영업 기조를 수립했다.

신한은행은 '202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240명이 참석했다. 지난 상반기 주요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반기 경영 슬로건은 '고객몰입의 끈을 고쳐 매고 고객의 실리(實利)를 높이자'로 낙점했다. 이어 전략 및 영업현장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유했다.

커뮤니티장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위

크숍을 진행했다. 하반기 전략추진 방향을 영업현장에 빠르게 전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행장은 “기본에 더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고객의 신뢰다”며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규범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거래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내부통제 자체를 문화로 받아들이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으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차별적인 솔루션과 디지털 기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점을 만드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박화재 CIO 취임... '전통 금융맨' 역량 기대

영업점·본사 리스크관리 인정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 총괄 사장(사진)이 군인공제회(군공) 신입 금융투자부문이사(CIO)로 취임했다. 17조원 규모의 운용자산을 굴리는 금융투자부문 수장인 만큼, '전통 금융맨'의 역량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박화재 CIO가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군인공제회 CIO는 금융투자, 리서치,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실무와 관리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투자 분야 임원 경력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개인 윤리와 도덕성이 투명하고 조직관리,



경영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1961년생인 박 신임 CIO는 광주상고 졸업 후 우리금융 고위 임원에 오른 입지 전적인 인물로 43년 동안 여신전문가의 길을 걸었다.

우리은행 전신인 한국상업은행에 1980년 입사해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 단장과 서초영업본부장, 업무지원그룹 상무, 여신지원그룹 상무, 여신지원그룹 집행부행장,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을 역임한 후 올해 3월까지 원피앤에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투자 경력이 보이지 않는 박 신임 CIO지만, 영업점과 본사에서 보여준 리스크관리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DL이앤씨, '잠실 우성4차' 재건축 수주

3817억 규모 단독 시공

DL이앤씨가 잠실우성4차 재건축의 시공권을 따냈다.

DL이앤씨는 '잠실우성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공사비는 약 3817억 원 규모로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시공한다. 해당 사업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2층, 9개 동, 총 825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2026년 9월 착공에 들어가 2030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잠실우성4차는 탄천 조망을 누릴 수 있고 지하철 9호선 삼전역, 올림픽대로

등의 교통인프라는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 등 풍부한 생활 및 교육 인프라를 갖췄다. 또한 잠실 마이스(MICE)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다양한 개발호재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차별화된 설계와 상품을 바탕으로 잠실우성4차를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에 걸맞은 또 하나의 주거명작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갈 곳 없는 투자대기자금 잡아라 최고 연 4% 파킹통장 경쟁 후끈

5대 시중은행부터 저축은행까지  
수시입출금통장 연 3.5~4% 경쟁  
SC제일銀 ‘Hi통장’ 최대 연 4%  
OK저축銀 ‘파킹플러스통장’ 개선

수익성과 유동성을 함께 쟁길 수 있는 ‘파킹통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금융권 내 각축전이 치열하다. 수시입출금통장인 파킹통장은 투자자금을 잠시 맡겨 두는 계좌다. 요구불예금으로 고금리를 제공해 뭉치돈을 유인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과 요구불예금 잔액은 638조831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4조7262억원 증가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보수적인 투자성향이 강해지면서 신규 회원을 확보하려는 금융권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른바 ‘파킹통장’으로 불리는 수시입출금통장에 연 3.5~4% 수준의 고금리를 적용하면서도, 높은 이자로 잘 알려진 저축은행은 물론 은행권도 파킹통장 금리 경쟁에 나섰다.

은행권은 지방·외국계은행이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자금조달과 신규 회원 확보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은행채(AA+/3년물)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3% 중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은행권 파킹통장은 0.3~0.5%포인트(p) 수준의 가산금리를 지급해 자금을 조달한다.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SC제일은행의 ‘Hi통장’이다. 한도 없이 최대 연 4% 금리를 적용했다. 월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의 특성상 5000만원을 예치하면 연간 172만원의 순이익을 만들 수 있다. 첫거래, 비대면가입 회원이 마케팅 동의를 하면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의 ‘BNK파킹통장’과 광주은행의 ‘365파킹통장’의 금리는 연 3.5%다. 경남은행 또한 가입 대상을 첫거래 개인고객으로 한정했고 광주은행은 최근 6개월간 당행 거래 내역이 없어야 한다. 양사 모두 신규 회원 유치에 초점을 맞췄다.

저축은행은 중대형사를 중심으로 파킹통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업황 악화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신규 회원 확보를 통해 상표가치를 높이려는 것.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는 홈페이지 내 입출금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시작했다. 파킹통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달 OK저축은행은 ‘OK파킹플러스통장’을 개선해서 출시했다. 예금잔액 500만원 이하 연 3.5%, 501만원~3억원 이하 분은 연 3.0% 금리를 탑재했다. 지난 1분기 OK저축은행의 거래자수는 107만4477명으로 전년 동기(92만163명) 대비 16.8%(15만4314명) 증가했다.

같은달 키움저축은행도 파킹통장을 내놓았다. ‘더 키움 파킹통장’의 금리를 연 2%로 책정했다. 금리경쟁력은 떨어지는 편이지만 중형사의 파킹통장 출시가 이례적이란 의견이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가 금리비교 기능을 신설한 만큼 시장의 분위기를 살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파킹통장은 예적금 대비 유동성이 높은 만큼 주력 자금조달 수단은 아니지만 마케팅에는 효과적이다”라며 “통장 개설 시 금리와 함께 한도, 지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본격 장마철... 보험사, 車침수예방 만전

업계, 비상 대응체제 운영 등 분주  
역대급 강수량 예고로 손해를 비상  
당국 ‘긴급대피알림 서비스’ 개시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시름하는 보험업계가 계절성 집중호우로 발생할 자동차 침수 피해 예방에 분주하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상 대응 체제를 운영하는 등 자동차 침수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기상청은 올 여름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7~8월 모두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이 40%에 달한다. 평년보다 강수량이 떨어질 확률은 20%로 예측됐다.

역대급 강수량 예고로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비상이 걸렸다. 5대 손보사(삼성·현대·DB·KB·메리츠 등)의 1~5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4%로 지난해 76.8% 대비 2.6%포인트(p) 상승했다. 업계는 통상 손해율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아직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손해율 상승을 우려한 보험사들은 장마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 중이다. 비상팀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고객 동의 하에 관공서와 공조해 침수 위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 및 위험지역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청계천 산책로가 침수 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

사전 침수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비상팀은 매년 폭우와 태풍 등 큰 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올해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 93개, 둔치 주차장 281개 등 전국 374여곳 이상 침수 예상 지역 리스트를 최신화했다.

KB손해보험은 ‘혹서기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수차량 보상과 고장출동 서비스 급증 상황에 대비한다.

손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사전준비 및 예방 단계 ▲초기관제 단계 ▲현장관제 단계 ▲비상캠프 단계로 비상대응 단계를 세분화해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취급 손보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

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달 28일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은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한다.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 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긴급대피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안내가 가능해지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업계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